

이덕일의 '역사의 창'



인재 찾기를 포기한 정권들

를 받은 후 남양(南陽) 용중에 은거해 농사를 짓던 제갈량을 찾았을 때 그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유비는 한참 기다려 제갈량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도 세 번이나 찾아가서 겨우 등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유비의 촉(蜀)은 조조의 위(魏), 손권의 오(吳)와 중원을 셋으로 나누어 패권을 다룰 수 있었다.

고려 말에는 '삼운' (三鸞)이 있었다. 은거하던 세 명의 선비라는 뜻이다. 아은(冶隱) 길재, 목은(牧隱) 이색, 도은(陶隱) 이승인(李承仁)이 바로 그들이다. 이승인의 시 중에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용중에서 길게 휘파람 불던 한 포의가/ 저물녘에 용처럼 날아 한(漢)나라의 기틀을 불든 것을"(君不見隆中長嘯一布衣/歲晚龍蛇拔漢基)이라는 구절이 있다. 용중에서 은거하던 한 포의가 늘그막에 세상에 나와 한(漢)나라의 기틀을 세웠다는 것이다.

조선 숙종 때 소론 영수였던 명재 윤중의 시구에는 "초당의 단점을 깨운 것이 헛것이 되었다"(虛破草堂眠)라는 구절이 있다. 제갈량이 출사했으나 결국 중원을 통일하지 못한 채 죽어 망했기 때문에 초야의 제갈량을 불러낸 것이 헛것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유비는 영안궁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제갈량에게 "만약 사자(嗣子: 아들)가 보필할 만하거든 보필하고, 재주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그대가 스스로 취하시오"라고

말했다. 자신의 아들 유선(劉禪)이 보필할 만하면 보필하되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왕이 되라는 당부였으니 초야의 포의거사를 세 번이나 찾아간 유비의 그릇을 알 만하다.

반명(鑿銘)이라는 말이 있다. 반(鑿)은 세숫대야이고 명(銘)은 그 세숫대야에 새긴 글이다. 은(殷)의 중흥 군주인 탕(湯)이 세숫대야에 "진실로 하루가 새로 있다면,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한다"(苟日新 日日新 又日新)라는 글귀를 새겨 놓고 세수할 때마다 다 스스로 되새겼다는 글이다. 탕 임금은 신야(莘野)에서 농사짓던 이운(伊尹)을 등용해 하(夏)나라 걸왕(桀)을 무너뜨리고 은나라 천하를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천하의 인재를 두루 찾지 않고 비선이나 하자 있는 인물들만 등용했기 때문이다. 촛불 혁명에 집결한 현 정권도 율타 내 사람만 쓰고, 하자 있는 인물들만 등용하니 세상이 다시 조롱하는 지경이 되었다. 역사를 '앞선 수레바퀴'라는 뜻의 전철(前轍)이라고도 한다. 앞의 수레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 그 길로는 가지 말라는 뜻이다. 한때 먼 과거도 아니고 바로 앞 정권이 남어진 덕분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다시 그 길로 가고 있니 이해하기 힘들다. 권력을 천하의 공물(公物)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유물(私有物)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나오는 고질병이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社說

문화전당·한전공대 법안 더는 미룰 수 없다

여야가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법안 등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가 초기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정상화와 한전공대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8일 열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다. 방역 관련 현안 질의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현재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광주·전남 지역 현안 관련 법안 가운데서는 지난달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사업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비해 한전공대에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순조로운 개교를 지원하는 특례 조항 등이 담긴 한전공대 특별법안은 여태껏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이 지난 정기국회는 물론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 지원' 혹은 '사립학교 지원'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온 탓이다.

문제는 이번 회기 내에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관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는 점이다.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의 경우 당장 처리되지 않으면 문화전당이 국가 기관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내년 3월 개교가 목표인 한전공대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생 선발에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해 이들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호남을 향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강추위 동반한 폭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이번 주 폭설을 동반한 북극발(發) 강 추위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 지방기상청은 오는 1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강추위가 지속되고,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사해리아 부근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남하하면서 영향을 미칠기 때문이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고 최대 3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의 경우 영하 12.5도를 기록한 20년 전(2001년 1월 15일) 기록에 버금가는 강추위가 몰아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추위와 폭설 내습 예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겨울철이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한파와 폭설일 수 있지만, 올해의 경우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무겁게 다가온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난대책반을 꾸리고 대비에 들어갔다. 수도권이나 보일러 배관 동파와 눈길 낙상·교통사고와 같은 생활 속 사고와 함께 시설하우스와 양식장 등 농·어업시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철저한 대비와 준비만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시설하우스의 저온 피해를 막고, 저수온에 취약한 양식장 어류의 동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매일수북 남은 생각하는 시민들의 '이타주의' 정신도 필요하다. 난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타인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는 한편 이른 아침 내 집 앞에 쌓인 눈을 쓰는 것도 이웃을 위한 조그마한 배려다. 코로나로 유난히 힘겹고 혹독한 이번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마치 신발을 신은 채 발바닥을 굽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조치가 그렇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검찰·재벌 개혁 등에서 아마추어와 같은 엉성한 조치들이 그랬다. 애초 약속했던 빈부 격차 해소나 사회 전반에 있어 공정한 시스템의 정착 등은 더욱 요원해진 느낌이다.

물론 혁신(革新)이란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의 살가죽을 벗겨 내는 아픔을 감내한 뒤야야 상대방 역시 비슷한 고통을 겪더라도 비로소 불만이 없을 것이라

볼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징수 없는 규제 정책은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수익 원칙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위장결혼까지 판을 치고 있는데 정부의 조치는 언제나 허겁지겁 뒤만 쫓고 있다.

검찰 개혁도 그렇다. 기소 독점이라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어하고자 했다면 그로 인한 폐해를 알려 국민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이었다. 수년간 이어진 법무부와 검찰 간 권력 다툼, 여가에 명분이 약한 법무부 조치로 오히려 현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하는 기현상마저 벌어졌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 등은 유야무야되고 국가균형발전 역시 공영불에 그치고 있다.

주로 컴퓨터에 사용됐던 리부팅(Rebooting)이라는 용어가 최근 '어려움을 딛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제 정부·여당도 리부팅이 필요하다. 잠시 멈춘 뒤 무엇이 문제였다 분석하고 목표표 재설정대로 온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가파르게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국민이 최소한의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윤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리부팅

선 후보로 부상하는 기현상마저 벌어졌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 등은 유야무야되고 국가균형발전 역시 공영불에 그치고 있다.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의료칼럼

50대와 전립선



조희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과장

수도 2015년 105만 1000여 명에서 2019년 131만 80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립선 크기가 증가해 배뇨 장애 증세를 겪게 되는 전립선 비대증은 대부분 노화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전립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대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전립선 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지고 전립선 내 존재하는 DHT 라는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져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된다.

진단법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점수화한 문진표가 있다. 위에 언급한 세 종류의 증상들을 점수화해 진단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신체검사소 전립선 크기를 측정하는 직장 수지 검사에 있는데 전립선 모양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전립선 초음파를 시행한다. 항문으로 가느다란 초음파 기기를 삽입, 초음파 상에 나타나는 이상 조건들을 발견해 전립선의 전체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또한 소변이 나오는 속도를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요류 검사와 배뇨 후 잔뇨량을 파악하는 잔뇨 초음파 검사도 있다.

치료법은 관찰 요법, 약물 요법, 수술적 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관찰 요법은 증상이 가벼워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알코올·카페인 함유와 수분 섭취량을 줄이면서 규칙적 배뇨 습관 등으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불편함을 줄이는 요법이다.

약물 요법은 요도가 전립선에 의해 압박되고 있는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전립선 증대를 촉진하는 DHT 호르몬을 억제해 전립선 크기를 20-

30% 정도 감소시키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약물 요법으로는 전립선 비대증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중증 혹은 고도의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다. 경요도 수술은 허반 시 마무리 통증을 없애고, 요도를 통해 카메라를 넣어 요도를 막고 있는 전립선의 일부분만 보기 좋게 도려내는 수술로 부작용도 거의 없고 수술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가장 잘 물어보는 질문 세가지가 있다. 발기 부전 원인, 전립선 암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수술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환자들이다.

발기 부전은 노화와 관련 없다 보니 전립선 비대증으로 생길 수 있다고 알고 계산 분들이 많은데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 두 질환이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발생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도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술 부작용도 거의 없다.

전립선 비대증의 특별한 예방법은 따로 없다. 금연과 금주, 식생활 개선 등으로 위험 인자를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50대 이상은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한편 라이코펜이라는 좋은 성분을 보유한 토마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도 이소플라빈이라는 단백질이 전립선 비대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식생활 습관은 고지방식보다는 채소 위주 식단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칭찬과 상에 대한 단상

재판관이 마지막 소원을 묻자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어 했다. 수감을 찬 아들을 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눈물 젖은 가슴으로 포용한 순간에 아들은 암마의 귀를 물어뜯으며 "엄마가 나를 죽였어요"라고 절규했다. 가슴 아픈 얘기가.

공자님은 영혼 없는 칭찬은 좋게 보지 않으셨다. 눈이 위명공편에 적혀 있다. "내가 사람에게 대해 누구를 열품고 누구를 칭찬하겠는가? 만일 칭찬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시험하는 바가 있어서 일 것이지"라는 말 씬이다. 기분 좋다고 하는, 흔히 실리지 않은 칭찬은 칭찬이 될 수 없다.

연말연시에 들어서면 여러 문화 단체의 갖가지 행사가 열리고 많은 상들이 주어진다. 세속을 초탈한 사람이 아니라면 상을 받아 즐겁지 않은 사람은 없을 줄 안다. 아닌 척 해도 사람의 내심은 다 거기서 거기다. 듣기 좋은 칭찬의 소리가 사방에 날린다. 그 속에는 진정성을 담은 칭찬이 있는 반면, 기분을 맞춰 주기 위한 빈말의 칭찬도 많을 것이다. 상대에 대한 부러움을 느끼면 인간은 배가 아파진다. 몰라도 좋을 심상까지를 선인들은 속담으로 남겨 놓았다.

상은 칭찬의 유사종이다. 칭찬의 속내가 가지가지인 만큼 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찍이 신석정 씨는 "도시 상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인데 "받아야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넘쳐 나는 문단 풍조를 개탄했고, 이어령 씨는 "사십이 넘고서도 상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폄하했다. 수필가 고 윤모춘 씨 글에는 더 적나라한 비판도 있다.

어느 수필가는 오늘의 우리 문단을 '삼다 삼무'로 진단했다. 그 삼다 중의 하나가 '상이 많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모든 칭찬과 상이 꼭 추천사관을 지향한 공자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생각은 해볼 일이다. 상은 대의명분에 의한 포편(褒貶)이어야 한다고 본다.

고래도 춤춘다니까 칭찬과 상(동물이라면 먹이)은 필요할 요소이지만 고된 없이 주어진 것이라면 어색스럽고 꺼릴러운 것도 사실이다.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름 있는 상이라도 헛되고 덧없다. 좋은 웃일수록 몸에 어울려야 빛이 나는 법이다.

때문에 상은 새로운 명에, 벗기 어려운 짐이 될 수가 있다. 남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수상자로서의 위상도 함께 추락한다. 향유유회(九龍有悔)다. 앞으로 떨어질 일밖에 없을 때, 용은 너무 높이 올라왔음을 후회한다.

존경받는 수필가가 어느 수상식에서 하신 말씀을 영 잊을 수 없다. 문인들이 자기의 대표작으로 등단할 때의 작품을 들먹일 때는 서글퍼진다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글을 써 왔는데 그 노력이 헛된 것 아니냐는 겸손의 말씀이지만 자만하기 쉬운 사람들을 혼드는 교훈이다.

노력은 값지다. 좋은 글을 쓰고자 밤을 새우는 의욕은 더 값지다. 그런 의미에서 상은 격려임과 동시에 분발의 유인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더라도 목적이 상이려면 부질없는 일이다. 연마와 자기 성찰은 보람된 삶 속으로 끌고 가는 수레의 양 바퀴란 걸 생각해 볼 일이다.

기고



홍옥주 수필가

미국의 켈 블랜차드가 쓰고 조전제 씨가 번역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가 선풍적 인기를 끌던 때가 있었다. '칭찬'이란 용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선 더 그랬다. 칭찬의 효과는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고래의 실험이 그랬으니까, 식물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사람들도 그러리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인간의 사고는 복잡하고 이중성까지 내장되어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무렵 감동 속에 읽었던 또 하나의 책이 김정모 씨가 엮은 '부모의 길 자녀의 길'이다. 몇 분이 쓴 것인데 글마다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김정모 씨의 글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어느 여인이 유복자 아들을 낳아 애뜻한 마음 하나로 길렀다. 기를 살리려 오로지 칭찬 일변도로 길렀다. 무슨 일을 저지르든 무조건 '잘했다'가 어머니의 소신이고 잣대였다. 누군가를 때리고 들어오면 "아이고 내 새끼 씨씩도 하지"로 일관했다. 끝내는 불량배가 되고 살인을 저질러 사형 인도를 받았다.